

## 7월 시행 복수노조, '복수갈등' 우려

###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지역기업 노-노, 노-사관계 혼란 일 듯

오는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사측도 준비 부족을 호소,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에 대한 관심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광주지역 노동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허용하지만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내용의 복수노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 모두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근 복수노

조 시행 시기에 맞춰 총파업을 선언했으며, 한국노총도 '창구단일화 폐지'를 목표로 야권과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준비 부족과 대비책 미흡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의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데다 제도 자체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가 크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 규정으로 명시해 노사 교섭에 앞서 노노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대기업들의 노사-노노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파업을 벌였던 금호고속을 비롯해 노노간 파벌 다툼이 심각한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의 제2노조 설립 움직임, 무노조 사업장인

삼선전자와 포스코의 노조 태동 등도 주목된다.

금호고속은 한국노총 소속 '금호산업 고속사업부지부'로 노조가 하나였지만 지난해 7월 임금동결과 타임오프 1만시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한 임단협 타결에 반발해 일부 노조원들이 탈퇴해 민주노총 소속 '전국운수산업 노동조합 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를 설립, 2개의 노조가 됐다.

새 노조는 '64년 무분규' 전통을 깨고 올해 초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사측은 "일부 사원들의 집단행동일 뿐"이라고 일축, 갈등을 빚었다.

금호타이어는 노노간 파벌 다툼이 제2노조 설립 움직임, 무노조 사업장인

전망이 우세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월 전임 노조 집행부 등 24명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임 집행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제명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되지 않으면 독자노선을 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현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도 별도의 노조 설립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금속노조 탈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기아노동자연대(기노련)의 노조 설립이 점쳐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취산 진달래 '花들짝'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4일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 중 하나인 여수시 영취산의 연분홍 진달래가 활짝 피어 등산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과학벨트 입지 '공정 심사' 촉구

### 호남권유치위 "지반 안정성에 가치 부여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이하 호남권유치위)가 14일 과학벨트위원회의 입지선정계획과 관련해 공정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갖고 '과학벨트 입지 선정의 공정한 심사기준과 투명한 과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3면>

호남권유치위는 입지선정계획의 평가기준 가운데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항목을 적격-부적격 방식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입지선정 계획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호남권유치위는 성명에서 "과학벨트 특별법에 5가지 입지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지반안정성 항목에 대해서만 적격-부적격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만한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일련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반 안정성과 재해 안전성'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

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객관적인 지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남권유치위는 이에 따라 "지반안정성과 재해 안전성에 대한 평가방식을 정당 철회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5가지 입지요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함께 지반안정성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운태 시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있어서 광주는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지반이 안정돼 있어 가장 유리한 입지"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에는 국방부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200만평 규모의 평등 포사격장을 비롯해 빛그린산단과 진곡산단 등 곧바로 과학벨트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지만 대안은 바로 개발할 산단이 없다"며 "광주가 부지확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포항은 지방안정성 면에서 부적격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는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데 핵심 요소인 지반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알립니다

#### 토요일자 당분간 발행 중단... 독자 여러분의 양해 구합니다

광주일보의 지난 2009년부터 제작원이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울려 신문 용지대를 비롯한 각종 원·부자재 및 발송료의 압박이 무거워졌습니다. 물가에 맞춰 구독료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 경제여건상 구독료 인상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광주일보 임원진은 숙고 끝에 구독료 인상 대신 매주 토요일자 발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는 송구한 일이나 주일 근무제의

확산과 도서벽지 독자들에게 대한 우편배송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주말 광주일보의 잠정 발행중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광주일보 전 종사자들은 깊이 애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토요일자 발행을 재개 할 때까지 보다 충실한 지면으로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도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 서비스는 차질없이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光州日報社

### 막걸리 항암 성분 맥주·와인의 25배

우리나라 대표적 전통주 막걸리에 항암물질 성분이 맥주나 와인보다 최대 25배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 하재호 박사 연구팀은 막걸리에서 항암물질인 파네솔(Farnesol) 성분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파네솔은 과실주의 중요한 항기 성분으로 약 5~7mg/l 정도의 미량으로도 항암 항종양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팀은 국내 시판 중인 막걸리, 맥주, 포도주, 소주 등의 파네솔 함량을 분석한 결과 막걸리의 파네솔 함량이 포도주나 맥주(15~20 ppb·1 ppb는 10억분의1)보다 10~25배(150~500ppb)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 박사는 "1주일에 이를, 한 번에 3~4잔의 막걸리를 마시면 실질적인 항암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방스파  
**한울정**



###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한울 정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의 조화와 균형 상태인 '울려'를 구현하기 위한 한울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 한울정의 특징

- 1인 1실, 1:1 케어
- 한방 화장품 한울 정품 사용
- 금수저&은수저 마사지
-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사용 및 5% 적립 가능

아리따움 충장지역점 2층에 있습니다. ◆ 예약문의 : 062)432-3030

